로컬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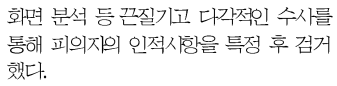
익산시, 사회복지대회 개최

제17회 사회복지 날을 맞아 익산지역 사회복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격려하고 화합하는 '2016 익산시사회복지대회'가 7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익산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정헌율 익산시장, 소병흥 익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종사자 및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이리보육원 초·중학생으로 구성된 '드림난타팀'의 파워풀한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축사,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좋은 이웃들'이 홍보부스를 운영해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3개 정보화마을 생생마을 한가위 큰 장터 참가

익산시 3개 정보화마을이 9일~11일까지 3일 동안 전북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전라북도 생생마을 한가위 큰 장터에 참가한다.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을 중간 유통단계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상품 홍보를 함께 한다.

망성면 어량정보화마을은 청물외장아찌, 서리태, 도라지, 마늘, 대추, 여산면 두여정보화마을은 양파, 레드퀸메론, 우리밀오색수연소면, 파프리카, 아로니아 분말선물세트, 땅콩, 성당면 두동편백정보화마을은 편백베개, 햇고추, 벌꿀, 참기름, 꾸지뽕원액, 보리쌀 등 50여종 상품을 판매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경찰, 물품사기 피의자 구속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7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콘서트 티켓, 책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4명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 피해자를 유인 후 지인들의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 받는 등 범행 발각에 대비 치밀한 계획을 수립·실행했다.

군산경찰은 통신수사, 계좌추적, CCTV 화면 분석 등 끈질기고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 후 검거했다.

군산경찰서 수사과장 여상봉은 "인터넷으물품 구매시 판매자의 과거 판매내역 및 댓글을 확인하는 등 신중한 판단과 더치트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 관련 피해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군부대 방문

정헌율 익산시장은 7일 오전 익산대대(부대장 이진규)를 방문하여 지역 향토방위태세를 확인하고, 부대 장병들과 훈련 중인 예비군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향토방위태세를 책임지고 있는 익산대대를 방문하여 부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훈련 중인 예비군들을 직접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정 시장은 이날 "예비군이야말로 지역 방위안보태세의 구심점"이라며, "우리지역의 방위태세는 스스로 지켜 나간다는 원칙아래 굳은 민·관·군 협력체계를 유지해 지역방위태세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올해 들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익산시는 민·관·군의 단단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향토방위태세에 온힘을 다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군산시, 온누리 상품권 홍보 ·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등 4개 분야 중점

군산시가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은 온누리 상품권 구입 및 홍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추석 물가안정 관리, 전통시장 및 내 고장 상품 애용 캠페인 등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구입을 통한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추진하고, 관내 R&D 기관 10개소와 100인 이상 기업체 41개소를 대상으로 담당부서별 방문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구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시는 전통시장 장보기 추진기간을 운영, 지역 내 9개소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펼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특히 군산시는 오는 12일 문동신 군산시장,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군산공설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주민들에게 풍성한 명절을 기원하며 민생현장을 챙길 예정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추석 명절 물가 특별안정대책 기간을 정하고 김양원 군산부시장을 상황실장으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농수축산물 점검반 등 5개 반을 구성해 원산지 및 가격표시 위반 등 중점관리에 들어간다.

또한 전통시장 및 내 고장 상품 애용을 위해 롯데마트 사거리 및 구 보건소 사거리에서 캠페인을 실시해 군산시 각 부서 및 소비자단체 회원 등 280여명이 행사에 참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정진수 지역경제과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및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14일~18일까지 특별교통대책 추진

KTX 익산역 환승장 · 교통취약지역 등… 귀성 · 성묘객 위한 교통편익 제공

익산시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많은 귀성객들의 방문에 맞춰 오는 14일~18일까지 5일간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KTX 익산역 환승장 및 팔봉공설묘지, 교통취약지역 등에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귀성객과 성묘객을 위한 교통편익을 제공한다.

KTX 익산역 환승장은 5분간의 정차를 허용하고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 신속하게 단속 및 견인을 실시하여 환승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코레일에서는 익산역 서부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추석명절기간을 포함하여 지하차도 공사 완공 시까지 50% 할인한다.

추석 당일에는 팔봉공설묘지에 많은 성묘객들이 방문할 것을 대비해 원팔봉삼거리~팔봉공설묘지 입구까지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등을 통제한다. 오전 8시~오후1시까지 공설운동장과 팔봉공설묘지 사이에 6대의 무료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성묘객들을 위하여 장애인 수송차량을 4대 배치하여 공설묘지 안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권혁 교통행정과장은 "추석 성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차량통제와 무료순환버스 이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 농촌 환경 지킴이 되다

영농폐자재 공동 수거

여성농업인단체인 군산시생활개선회가 10년째 들녘에 버려지고 방치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영농폐자재를 공동 수거해 자원화하고 있어 화제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들녘에 버려진 농약병, 폐비닐, 비료포대 등 영농폐자재 약 63톤을 수거해 농촌 환경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다.

12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생활개선회원 665명은 자신들이 사용한 농약병과 비료포대 등 영농쓰레기를 보관하다가 공동 수거기간에 농업기술센터 임시 집하장으로 가지고 온다. 또한 읍면별로 공동 수거팀을 구성해 회원들의 차량을 이용, 시설하우스나 축산농가의 영농폐자재나 들녘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다.

폐자재 수거양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에는 1톤 트럭 250대 분량의 영농 폐자재가 모아졌으며, 수거된 영농폐자재들은 농업기술센터에 임시 집하한 후 한국환경공단전북지사에 전량 인계해 자원화 한다.

이와 함께 군산시생활개선회는 영농폐자재 분리수거 교육을 통해 농약 빈병과 봉투 등 영농폐자재 분리수거를 생활화해 타농업인단체까지 농촌환경살리기 의식을 확산 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수면은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회가 공동으로 서수농민상담소 옆에 영농폐자재 상설집하장을 신축하고 매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생활개선회 군산시연합회 오순희 회장은 "폐자재가 부피가 크고 무거워 차에 싣고 내리기가 힘든데 금년에는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도움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며 "영농폐자재 공동 수거사업으로 농촌지역이 깨끗해져 보람을 느끼고 타 시민단체들의 동참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생활개선회는 영농폐자재 자원화 수익금으로 오는 29일 홀로 사시는 어르신 100분을 초청해 '재능기부 경노 효 잔치'를 개최할 계획으로, 버려진 영농쓰레기가 더불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군산시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세아베스틸이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모토로 군산시를 방문, 백미(10kg) 800포(17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군산시, 이웃사랑 실천으로 풍성한 한가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군산지역 축산인 단체가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과 무료급식소에 전해 달라며 돼지고기를 군산시에 기탁했다.

(사)대한한돈협회군산지부(지부장 김현섭)는 돼지고기 950kg(5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세아베스틸이도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모토로 어려운 이웃들과 훈훈한 온정을 나누는 한가위를 보내기 위해 군산시를 방문, 백미(10kg) 800포(17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주)세아베스틸은 매년 '희망나눔 지역복지' 업무협약을 통해 노사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앞서 6일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장 석병오씨는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명절나기를 위해 써달라며 백미 40포(10kg)를 회현면에 기탁했다.

석병오씨는 해마다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이밖에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을 지원하는 등 선행을 펼쳐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아름다운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 기업체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기탁된 성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내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서, 야간 보행자사고 예방 위해 조명등 설치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안전표지와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특히 야간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사고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조명등을 미장교차로, 동초교 3가를 비롯한 약 60개소에 140개를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어두워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았던, 경암4거부터 연안4가 까지 도로의 가로등 조도를 상향하여 인근 주민들과 철길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8월말 현재 전북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87명 중 보행자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62명으로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행자 교통사망자고 중 64%는 야간 심야시간대에 발생했다.

지난 4월 2일 밤 9시경 명산동 구)의 환은행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해 보면 사고 현장 주변에는 가로등만 설치된 상태로 횡단보도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횡단보도가 어두운 상태였다. 이러한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자가 많은 곳, 아파트 주변, 대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등에 조명등을 집중 설치한 것이다.

김동봉 군산서장은 "더 밝아진 군산, 더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안전한 도로는 군산시민 모두가 서로를 배려해 줄 때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심뇌혈관질환예방 주간 레드서클 캠페인

군산시보건소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레드서클 캠페인을 펼쳤다.

레드서클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한 혈관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존 운영, 레드서클 걷기, 뇌졸중 응급증상 '구급차타자' 홍보 등 다양한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홍보주간 동안 보건소 및 공설시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SBC사업장에 레드서클존을 설치하고,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과 개별 건강상담을 실시했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법과 뇌졸중 응급증상 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7일 월명공원 일원에서는 레드서클 걷기 캠페인을 실시해 자기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알려주는 '레드써클존'과 심뇌혈관질환의 이해를 돕는 OX 퀴즈, 노년기 구강관리법 및 하지근력 강화운동 체험, 심뇌혈관질환 활동사진 전시회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부스 체험 후에는 함께 걷기를 통해 운동 전후 혈압·혈당 변화와 건강생활 습관을 통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의료원, 호스피스 완화 의료전문기관 지정

군산의료원(의료원장 김영진)은 그간 시범운영해 왔던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사업이 지난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완화 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기관에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진료 및 호스피스 제공에 관한 실적 및 서류 평가와 현지 확인 후 지정 기준에 적합 하면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군산의료원 호스피스 완화 나눔병동은 호남·충청권 최고의 시설로 1인실 2개, 4인실 6개 등 총 28병상 규모로, 상담실, 가족실, 임종실, 프로그램 요법실, 목욕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특히,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실내 정원을 겸한 휴게실도 함께 갖추고 말기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과 사별가족을 위한 돌봄 등 총체적이며 전인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김영진 원장은 "그동안 지역 내에 호스피스기관이 없어 타 지역으로 가야만 했던 경제적인 부담등을 해결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존엄한 임종을 맞이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